

잃어버린 뿌리를 찾는다, 족보도서관

부천시에 위치한 족보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족보도서관으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275개 성씨의 족보 3만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전란 등의 이유로 소실된 것이 많지만,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족보를 복원하는 등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초의 전문 도서관이기도 한 족보도서관을 찾았다.

족보도서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 개의 허름한 책상과 뻑뻑히 무거운 족보를 버티고 있는 철재 테이블이 눈에 띈다. 세련되고 잘 정리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웬지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곳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진열대 위의 책들이 대부분 고서적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족보도서관에는 그만큼 시간의 깊이가 있었다.

한 청년의 관심으로 시작한 족보도서관

족보도서관은 20년 전인 1988년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던 한 청년에 의해서 문을 열었다. 그 청년은 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잊혀져 가는 옛 조상의 기록문화들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사재를 털어 족보도서관을 세웠고, 지금까지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바로 족보도서관

김원준 관장이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족보도서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시절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꿈을 키우던 정치학도였다. 그러나 그는 군대시절,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자신의 동료들을 체포해야 하는 경험을 한 후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 정치와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전역 후 정치의 꿈을 접고, 학문의 길을 가기로 한다. 그가 관심 있었던 것은 그 당시 한학이었다. 당시 만해도 어린 시절 서당에서 배웠던 학문들이 낡고 진부한 것이라고 치부되면서 마구잡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에게 급한 것은 더 이상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기 전에 우리 문화 기록들을 보존하는 일이었다. 초창기에는 열정이 앞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방대한 우리 문화의 영역에 한 개인으로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 욕심을 줄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그는 어린시절 할아버지의 품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바로 '족보'였다.

족보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화된 노력들

그렇게 족보도서관을 세우기로 뜻을 세웠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만해도 도서관이라는 것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국가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하나 유실되어 가는 족보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조급함까지 느꼈다고 회고한다.

처음에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문중을 찾아다니면서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족보를 줄 수 없냐고 했지만, 모두들 거절했다. 김 원장은 자신이 아니라도 그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이 그 방대한 양만큼이나 가격도 고가여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중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족보를 가지고 있



잠깐!

족보의 종류

-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이다.
- **족보(族譜), 종보(宗譜)**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 **세보(世譜), 세지(世誌)**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 것을 말하며 동보, 합보라고도 한다.
- **파보(派譜), 지보(支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 가고 있다.
-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책이다.
-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업적, 전설, 사적을 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를 가리킨다.
-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이다.

잠깐!

김원준 관장



“뿌리를 찾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일”

많은 족보를 수집하기 위한 자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 제가 그걸 시작하기 전에는 전문도서관을 지어서 참 그럴듯하게 해 보겠다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도서관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개인이 마련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하나둘 모아둔 것을 정리하니 조그만 도서관을 이룰 정도가 된 겁니다. 물론 문중에 많은 요청을 해 보았지만, 개인에게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하는 족보를 쉽게 주지 않았죠. 돈이 생길 때마다 구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족보 도서관을 주로 찾나요?

족보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분단 상태였기 때문에 월남한 사람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족보를 통해서 가족을 찾습니다. 50년이란 시간이 흘러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족보밖에 없습니다. 이밖에도 인생을 마감하면서 뭔가 후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 석박사 논문을 준비 중에서 인물사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의 견학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족보와 인쇄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족보를 살펴보다보면,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보지만, 자연스레 그 책 자체에도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족보의 상태를 보면 제작 당시에 이 집안이 어땠는지를 어렵듯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이 크게 발전했을 당시에는 고급 한지에 정성들여 제작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경우가 있지만, 가계가 피폐해졌을 때는 목판으로 재생지보다도 못한 종이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다는 것도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족보를 직접 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경제상황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데로 부분 부분 구입하거나, 주로 고서점을 찾아다니면서 구입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기를 10년, 그는 족보관련해서는 유일무이한 전문가가 되었다. 또한 자료들을 정리하니 조그만 도서관은 차리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렇게 1988년 세계 처음으로 족보도서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은 모두 김 관장이 손때를 묻혀가면서 더듬고 더듬었던 책들이다.

그 이후로도 족보를 꾸준히 구입해 현재 족보도서관에는 275개 성씨 3만여 족보가 갖춰져 있다. 이제는 아예 들 자리를 찾지 못해서 늦게 들어온 족보들은 바닥에 받침을 두고 모셔두고 있다. 김 관장은 옛날 같았으면 어른들에게 혼이 날 것이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상들도 이 어린 녀석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한다. 무엇보다도 족보도서관은 사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구입하지 못한 족보들이 많고, 또 테이블도 늘려서 바닥에 앉아 있는 소중한 족보들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족보도서관은 운영을 위해서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족보강좌를 열고 있고, 뿌리찾기 범국민계몽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족보와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잃어버린 족보를 찾아주고, 편집, 제작해주는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족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CD 제작도 대신하는 등 족보의 저변 확대와 자원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족보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우리들만의 방식

일제시대와, 전쟁, 그리고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철저히 부정하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부하고 낡은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오래도록 전해오던 문화는 마구잡이로 파괴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양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

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사회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원준 관장은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족보'를 살펴보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족보'는 좁게는 한 개인에게, 크게는 우리 민족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고, 북극성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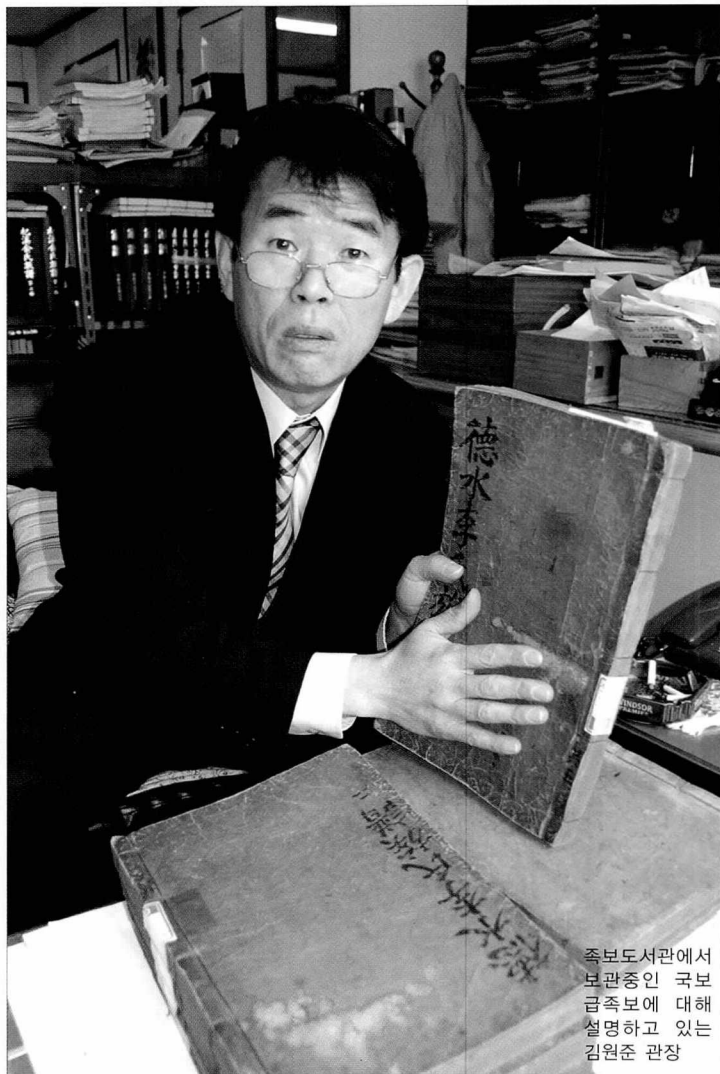
족보를 보면,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가계도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다. 한 번에 시조를 만날 수도 있고, 비조는 누구이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때 족보는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족보는 조상을 기억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매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는 우리들만의 방식이었다.

오랜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족보

김 관장은 족보를 찾는 일은 집안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오늘부터 내가 기록을 유지해나간다면 언젠가 몇 천 년이 지나더라도 누군가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란 존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조상들은 많은 기록들을 남겼고, 자신의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다. 우리 족보에는 그런 소중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성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종교화된 것이고, 우리의 족보는 그렇지 못한 차이일 뿐이다.

김 관장이 아쉬운 것은 요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족보 보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한다. 족보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서술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읽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족



족보도서관에서
보관중인 국보
급족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원준 관장

보가 있어도 이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족보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족보도서관은 그들에게 족보를 보는 법과 찾는 법등을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글화 작업을 통해 누구나 족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메시지를 읽기 위한 노력이라 아닐까. 수많은 족보들 사이에 있다 보면 김 관장은 다시금 아주 어리고 보잘 것 없는 한 아이가 된다고 말한다. 할아버지 품에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